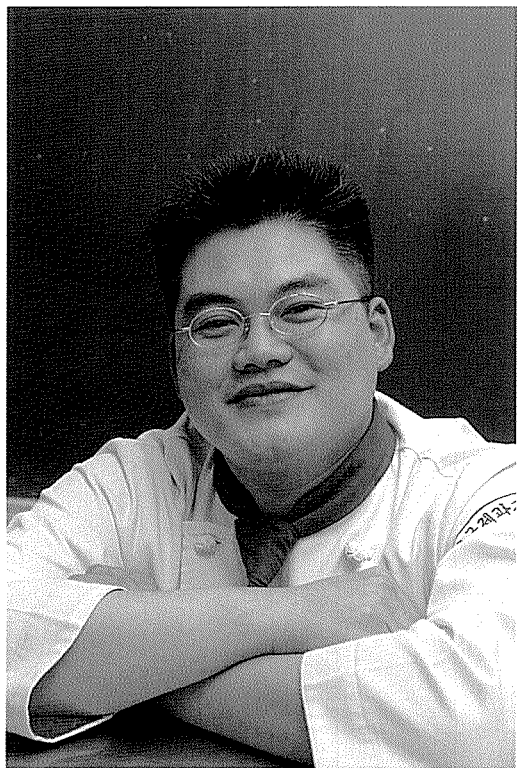


미술학도가 빵과 손잡은 까닭은

한국제과학원 강사 조성훈



조성훈(30)씨는 가난한 미술학도였다. 90년 단국대학교 동양화과에 입학해 2년여 동안 하얀 화선지 위에 산수화를 그렸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결혼식장 비디오 촬영기사,

자동차 학원 강사, 공사장 인부 등 그가 경험한 일들이다.

다양한 경험의 끝자락에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 제과점일이 있다. 또 다른 '별이'를 찾다가 92년 그는 우연히 제과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판매를 담당하다가 건장한 체격(?) 덕에 생산 보조일을 맡았다.

“훗날 베이커리업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고 이 일이 제대로 공정을 지키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학업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가정 형편과 직업 전망을 고려했을 때 그림을 그려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대학 3학년 때 대학을 중퇴한 그는 원가 전문적인 일을 찾았고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다.

94년 그는 한 제과점 생산보조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정식으로 베이커리업계에 '전입 신고' 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꼈다. 낮에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과학원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익혀나갔다. 제과제빵 관련 전문서적을 수집해 탐독하는 한편 기술세미나도 열심히 참석했다.

98년 한국제과학원 강사로 입사한 후에도 그의 '제과제빵 수업'은 계속됐다. 98년 건국대학교 제과제빵 최고경영자과정은 이수했고 올해는 혜전대학 제과제빵 산업체위탁교육과정에 입학했다. 그렇다고 그가 그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틈틈히 그림을 그린다. 요즘은 유화 그림에 몰두해 있다. 그가 완성하고픈 자신의 그림은 무엇일까.

“미술과 제과제빵을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 중입니다. 회화기법이 가미된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글/ 손인수〉

전자 제어 A/S는 우리가 최고

광성공업 이정선, 김재명

둘은 동갑내기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과를 나왔다. 그러나 졸업 후 한명은 제과 기계 업체에 몸담았고 다른 하나는 LG산전, 삼성전자에서 일해 헤어졌다. 몇 년 후 대기업에서 일하던 하나가 다른 하나가 일하는 곳으로 옮겨왔다. 광성공업의 A/S를 책임지는 쌍두마차는 그렇게 완성됐다.

이정선(26)씨와 김재명(26)씨. 그들의 제과 기계 입문 동기는 또렷하다. 제과점이 증가하고 제과 기계가 선진화하는 추세여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둘은 동양공고의 전자 관련 학과를 나왔다. 따라서 그들의 특장이 발휘

되는 곳은 제과 기계의 전자 제어 부분이다.

“최근의 제과 기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가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A/S 기사들이 전자 제어 장치 부문의 이론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 부문을 공부했고 몇 년의 현장 경험도 있어 유리한 편이죠.”

둘의 설명 그대로 최근 광성공업이 전자 제어 A/S에서 호평을 받는 것도 이들의 능력 덕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둘에 의해 현장에서 해결된다. 현장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도 이들은 탁월한 지식으로 고장 부분과 부품만을 수리하고 교체한다. 따라서 비싼 부품을 사용해도 기계

의욕이 넘치는 젊은 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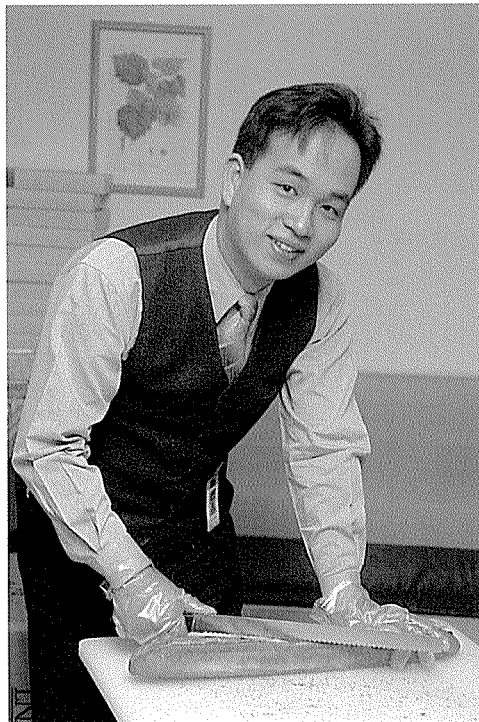
파리크라상 안국점 최치원

“점장의 위치지만 매사에 일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베이커리 일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부딪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일이 저에게 재미가 있고 경영하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올해로 제과업계에 입문한 지 1년 반이 조금 넘는 최치원(28)씨는 패기와 의욕에 찬 젊은이다. 그는 현재 파리크라상 안국점에서 한 점포를 맡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점장으로 직원들과 함께 한층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그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살게 됐다. 최치원씨는 대학 졸업 후 학군 34기로 소위 임관 후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며 단체 생활에 필요한 조화의 틀과 리더십을 배양하게 된다.

그는 제대하기 얼마 전인 98년 6월 2군 사령부로 온 파리크라상의 취업의뢰서를 보고 흥미를 느껴 지원했는데 합격하여 제대 다음날부터 근무하게 됐다.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는 딱딱한 분위



기에서 상명하복의 명령만이 존재했지만 사회에 나오니 그런 것과는 반대로 유희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점포를 책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신경 써야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치원씨는 처음 근무하게 된 곳이 수원에 있었던 점포라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군에서 터득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잘 융화시키며 착실하게 일해나갔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산타 배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산타 복장으로 고객들의 집을 돌면서 케이크를 배달해주는 것인데 몸은 피곤해서 녹초가 됐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는 파리크라상 안국점에서 근무하게 됐다. 최치원씨가 이곳에 온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의욕과 패기에 찬 젊은 점장은 벌써 큰 사고를 하나 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샌드위치 뷔페를 시작해 매출을 끌어올린 것이었다. 점포 앞에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치해 현재 지하철 역 안에 있는 점포로는 보기 드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치원씨는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군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어려운 점이 많음을 느꼈으며 꾸준한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말했다. 자신의 일에 창의와 도전정신이 넘치는 그를 볼 때 젊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글/ 정한상>



판 전체를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제과점의 호응을 얻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은 A/S 기술만 뛰어난 것만은 아니다. 성심껏 고

장 부분을 고치고 원인을 설명하는 등 A/S에 임하고, 정직하게 부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반드시 그 업체를 찾겠다고 설명한다. 아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나름대로의 뚜렷한 A/S관과 성공을 위한 조건을 체득하고 있는 정도이다.

“수요와 공급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A/S의 질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기술과 A/S 요청에 대한 빠른 처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A/S 요청이 오면 수도권의 경우 3시간 내에 응답하고 5시간 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쇼케이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의 경우는 밤 11시까지 핸드폰을 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중간 쌍두마차 중 한명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울렸다. 그리고 이런 말이 떨어졌다. “2시까지 가겠습니다.” <글/박종선>